

알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지마라!

여러분을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캠페인에 초대합니다.

2018 년 5 월 15 일 16 시-18 시

주독 한국대사관 앞

Stülerstr. 10, 10787 Berlin

한국은 분단국가이다. 1953 년 한국전쟁 이래로 계속되어왔던 북한에 대한 경계는 한국의 높은 군국화를 야기시켰다. 한국의 인구 약 5 천만명 중에서 65 만명이 군대에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5 번째로 큰 군대규모이다. 동시에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경제 강대국이며 미국의 동맹국가이기도 하다. 모든 남성은 21 개월에서 24 개월간 군복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복무 이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높은 값을 치러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300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최대 18 개월까지 수감되어 있다. 몇년 전부터 “전쟁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는 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를 끝내고 그들을 인정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었다. 재판관들이 유죄판결 내리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수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반적인 인권으로 보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대통령 선거기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약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에 특별한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즉각 석방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을 요구한다.

Arbeitskreis Internationalismus IG Metall, Connection e.V., Deutsche Friedensgesellschaft – Vereinigte KriegsdienstgegnerInnen (DFG-VK) Berlin-Brandenburg, Deutsche Ostasien Mission (DOAM), Ev. Arbeitsgemeinschaft für Kriegsdienstverweigerer für Frieden (EAK),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Internationale der Kriegsdienstgegner*innen (IDK), Korea Verband, Mennonitisches Friedenszentrum Berlin